

오늘의 말씀

2025년 6월 1일 ☞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민수기 13:25~14:10 (구약성경 216쪽)

□ 민수기 13:25~14:10 ☞ 가나안 땅 정탐 / 백성의 원망

(25)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 다만 여호와의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시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대한 예수 교 천안서부교회
장로회

311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9 (성정2동 1234)
☎ (041) 553-4205~6, 553-4207(FAX), 070-4010-7040~4
http://www.westchurch.or.kr / casbch@hanmail.net (사무실)

성품 훈련 6월 주제

“순종 = Obedience”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others with a good attitude.

순종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쁘고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환경 속의 약속과 질서를 알아 순응하는 태도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거스르지 않는 행복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세계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자녀 양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아니라 좋은 성품으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품 이노베이션(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즉시 “YES!” 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성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바로 “YES 법칙”입니다. “YES 법칙”에서 Y는 지시에 즉시 YES 하는 것입니다. E는 Earnest,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S는 Suggestion, 내 생각과 다를 때 예의 바른 태도로 제안합니다. “YES 법칙”의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묵상, 가정예배, 신앙전승 4세대를 이루는 가정되게 하소서

- 1 주일성수 ☞ 토요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한다.
- 2 예배 ☞ 가정예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예배자로 성공하자.)
- 3 기도 ☞ 기도연대 (새벽기도, 정오기도, 119 구국기도)
- 4 경건한 가정 ☞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 5 거룩한 삶 ☞ 빛과 소금의 삶

대한 예수 교 천안서부교회
장로회

가정주일학교

주일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주일 저녁 가정에서 나눕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3:25~14:10 (구약성경 216쪽)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1.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동일하게 보고한 내용은?

- 1)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 2)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 3)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 4)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 (1)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 (2)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 (3)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2. 정탐꾼들이 다르게 보고한 내용은?

- 1) 여호수아와 갈렙
 - (1)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 (2) 능히 이기리라
- 2) 열명의 정탐꾼
 - (1)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 (2)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 (3)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 (4)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 (5)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 같으니

3. 이들의 시선이 달랐던 이유는?

- 1) 냉혹한 현실만 바라 본 열명의 정탐꾼
- 2)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 말씀 적용 : 아래의 질문에 답하고, 생활에 적용합니다.

- 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 ②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 주기도문 : 다함께

가정예배 / 구역예배 / 한국교회 기도연대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도입질문 :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 말 씀 : 민수기 13:25~14:10 (구약성경 216쪽)

☐ 말씀적용 :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꾸려 할 때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사고(思考)의 틀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고정 틀 안에서 이것저것 바꾸는 게 아니라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한 구두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 아프리카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는데 얼마 후 현지에 간 조사원의 보고가 왔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거의 맨발이며 구두 같은 것은 신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보고를 받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조사원을 철수시켰습니다.

같은 시기에 경쟁 회사에서도 아프리카에 조사원을 파견시켰습니다. 얼마 후 현지에 간 조사원의 보고가 왔는데 그 사람의 보고 역시 먼저 파견되었던 조사단의 보고처럼 현지 사람들은 거의 맨발이며 구두 같은 것은 신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고임에도 조사원을 나중에 보낸 회사는 “맨발의 사람들은 훌륭한 고객들이다. 판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잠재적인 시장을 개척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절망 되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에 맞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대표자 갈렙입니다. 현실이나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번 도전해 보자.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앞서 열 명의 정탐꾼들 보고를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가서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 승산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전진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보고에 맞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외치는 말을 들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 적용질문 :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 중보기도 :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 다함께